



금주의 말씀

삼상15장 22절~24절



변의석 목사  
엘림침례교회 담임

우리는 살아가면서 버려야 할 것이 있고,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 버려야 할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붙잡아야 할 것은 끝까지 붙잡아야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 강아지 목에 줄을 매는 이유는 내 맘대로 끌고 가기 위함이다. 우리 인생의 목줄도 무언가에 매여 있으면 누군가에 의해서, 아니면 세상의 어떤 힘에 의해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김홍신 씨가 쓴 <인생사유 설명서>라는 책이 있다. 그는 37년 6개월 동안 담배를 피웠다. 폐암의 위험이 있거나 간접적인 살인행위라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한 번쯤 끊어볼까 생각도 했다. 원고를 쓸 때는 하루에 보통 서너 갑의 담배를 피우기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좋아하던 담배를 끊었다. 스승께서 던지신 한마디 말씀에 정신이 피폭 들었다고 한다. '죄는 죄악인 줄 알면 먹지 않는데, 사람은 죄악인 줄 알면서도 먹는다.' 그는 마음에 결단했다. '내가 세상을 끌고 가도 시원찮은데, 담배에 끌려다니다니...' 그는 37년 6개월간 쥐고 있던 담배를 내려놓았다. 그가 담배를 끊었다는 말을 듣고 지인들이 '잘 복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복받은 사람'이 복한 사람이지 어찌 버린 사람이 복한가'라고 말했다고 한다.

본문에 등장한 사람은 사울 왕이다.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 사울 왕을 책망하는 장면이다. 23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 왕에게 있어 인생 최대의 실수는 말씀을 버린 것이다. 말씀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것이다. 반면에 하나님은 말씀을 붙잡는 다윗에게 복을 주셨다.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로, 말씀을 즐겨워해야 한

다. 하나님은 말씀 속에 지식과 지혜를 담아 두셨다. 말씀 속에 약속과 능력을 담아 두셨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말씀으로 치유하신다.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온 집이 꽃을 기복 채우고 수시로 꽃나무를 바라보며 많은 시간을 보낸다. 애일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도 비슷하다. 나도 닭이 육 꽃나무를 샀다. 한국기행을 보는데 어떤 분이 이 꽃을 심고 자랑을 한다. 그래서 꽃을 좋아하는 나도 바로 그 꽃을 구입하여 심었다. 시

냏고 듣는 것이 솟양의 기쁨보다 나으니.' 예배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고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보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말씀의 배경에는 사울 왕에게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중요한 명령을 하셨다. 그것은 아말렉족을 진멸하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사울은 소와 양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죽이지 않고 끌고 왔다. 그리고 아말렉족의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포로로 잡아끌고 온 것이다. 나름대로 쓸모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무엇을 붙잡고 사는가?

그러자 하나님은 그런 사울로 인하여 탄식하셨다. 11절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니 그가 풀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 지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행동한 것이다. 사울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아 집부의 시기에 사로잡혀 인생을 망쳤다. 우리는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 한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복된 삶을 살아야 한다.

막 5장에 보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살았던 여인이 등장한다. 이 여인은 혈우병 환자

로 고통 많기 정도 되는 소망이 없는 죽은 몸속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깨끗하게 회복되었다. 삶이 힘든가? 고난이 있나? 일이 잘 안 풀리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을까? 예수님은 말씀이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바로 교회이다.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교회이다. 교회는 주님의 옷자락과 같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의 손은 천지를 창조하신 손, 모태에서 여러분을 낳아 만드신 사랑의 손, 능력의 손, 역사를 운행하는 그 손이 바로 예수님의 손이다. 교회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세상으로 다시 나가야 한다. 예배는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옷, 진송도, 기도도, 아름답게 흠날리는 주님의 옷자락이다. 자주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생기거든 예수님과 접촉 불량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전기도 선이 끊기면 전등의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접촉 불량이 생기면 능력이 없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하는 그사이에 먼지가 끼면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무엇을 붙들고 살고 있는가? 말씀을 사모하며 붙잡고 순종함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회복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한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미술대전 특선 작가 김창남 화백 그림성경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99. 환란 중에 즐거워하라(욥5:1~11)

어떤 생물학자가 번데기를 연구한 기록이다. "마침 여러 마리의 번데기가 나비로 탈바꿈 하는 중이었다. 한 마리, 두 마리, 그토록 작은 구멍을 통해 전신단고 애쓰더니 결국은 빠져나와서 공중으로 훨훨 날아올랐다. 마침 또 나오려고 애쓰는 놈을 발견하고 기뻐 구멍을 넓게 잘라 주었다. 넓게 열어준 구멍으로 나비는 쉽게 나왔지만 공중으로 날아오르려고 몇 번 시도하다가 결국 오르지 못하였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작은 구멍에서 고통하며 힘쓰면서 나와야 그 놈의 영양분이 날개 끝까지 공급되고, 또 심하게 날개가 마찰되면서 하늘로 날아오른다는 사실을.' 그렇다. 단일 고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은 육신의 인연만을 좇게 될 것이며, 영적인 것에 대하여는 무관심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도 갖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칼빈은 '이 세상에 고통이 많은 것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했다.

3~4월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임이로다"라고 했다. 단일 환난이 없다면 인내할 것도 없을 것이다. 그러면 연단도 없을 것이고 소망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기쁨과 신앙인 것이다.

/그림=김창남 화백 · 글=김승원 목사

교육



홍기범 교수  
·한림대학교 총장

오늘날의 문명과 문화, 정치제도는 사구 문명을 기반으로 구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양의 역사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계속해보자.

인류의 초기 문명에서 정치와 종교는 완전히 하나였다.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는 신 그 자체였고, 메소포타미아의 군주나 고대 제국의 왕들은 신의 대리자로서 국가를 통치했다. 법과 질서는 곧 신의 명령이었으므로, 불치자에 대한 복종은 신앙적 의무와 같았다. 이 시기 종교는 사회적 결속을 다지고 왕권을 강화하는 가장 강력한 정치적 도구였다.

중세시대는 종교 권력의 비대화와 교황 대종제의 갈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 유럽은 영적인 권력(교황)과 세속적인 권력(황제)이 공존하는 독특한 '제정분리'의 양상을 띠게 되었다.

그러나 중세가 깊어질수록 교황의 권력은 세속 군주를 압도하게 되었다. 1077년 '카노사의 굴욕'은 종교 권력이 세속 권력을 무릎 꿇린 정점이었으며, 중세 유럽은 하나의 거대한 기독교 신정체제처럼 운영되었다. 정치적 정당성은 오직 교회의 승인을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었다.

종교개혁과 종교전쟁으로 인해 절대 왕권과 절대 교황권이 붕괴하게 되었다. 종교전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다치고, 기복을 잃는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

16세기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교회의 절대적 영적 독점을 깨뜨렸다. 이는 단순한 신학적 논쟁을 넘어, 유럽 각국의 군주들이 교황정의 간섭에서 벗어나 세속적 주권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하나의 국가에는 하나의 종교만 있어야 한다는 당시의 관행은 유럽을 피로 몰았던 종교전쟁(프랑스 위그노 전쟁, 독일 30년 전쟁 등)으로 이어졌다. 신앙의 차이가 곧 국가적 화살과 전쟁의 명분이 된 이란의 시기였다.

1648년 체결된 베스트팔렌 조약은 정교분리로 가는 첫 걸음이 되었다. 30년 전쟁을 끝낸

정교와 종교의 자유를 규정한다. 정교분리 부분, 다음과 같다. "연방 의회는 특정 종교를 국교로 정하거나, 자유로운 종교 행위를 금지하는 어떠한 법률도 제정할 수 없다." 프랑스는 프랑스 혁명을 거쳐 1905년 '라이시테(Laïcité, 철저한 정교분리법)'를 통과시켰으며, 공적 영역에서 종교적 색채를 완전히 배제하는 공화국 전통을 세웠다.

요약하자면, 인류 역사는 신의 이름으로 움직이던 제정일치에서 출발하여, 종교의 독점이 놓은 참혹한 폐해(종교전쟁)를 겪은 뒤, 인간의 이성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정치와 종교를 격리하는 정교분리로 발전했다. 이로써 종교는 개인의 내면적 구원을 담당하고, 국가는 시민의 현실적 권리와 안전을 담당하는 현대적 자유민주주의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우리가 지난

종교전쟁(14)

베스트팔렌 조약(1648)은 정교분리의 전환점이 되었다. 이 조약을 통해 "불치자가 종교를 결정한다"는 원칙이 확립되면서, 국가 불치자들은 마침내 로마 교황정부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쟁취했다. 국가 간의 외교와 정치는 더 이상 '종교적 고려'가 아닌 '국가의 실리(국익)'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정교분리는 국가적 차원의 정교분리에 불과했으며, 개인적 차원의 정교분리는 아니었다.

18세기 계몽주의가 확산되면서 신앙은 국가의 영역이 아닌 '개인의 양심과 자유의 영역'으로 이동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옮겨간 정교도들은 미국 건국의 근간이 되었다. 1791년 12월 15일 수정헌법 제1조를 통해 세계 최초로 국가적 차원의 정교분리를 규정하였다. 수정헌법 제1 조는 언론과 출판과 집회와

80년 동안 누린 자유민주주의와 종교의 자유는 우리 선조들의 피값으로 얻은 것이다. 사상과 종교의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에, 자유 자체를 위협하게 하는 독소가 들어 있다. 사상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지만, 사상과 종교 중에는 다른 사상과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타도의 대상으로 삼는 사상과 종교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반사회적, 반국가적인 사상이나 종교도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최소한 자유민주주의와 종교의 자유를 부정하는 사상이나 종교는 규제를 하는 것이 마땅하겠으나,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손자녀들의 영혼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 항상 기도해야 한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건물 매매·임대

광고 문의  
T.062) 367-9109  
F.062) 367-9108

※ 예배당 기도원 등 교회 관련 부동산 매매 및 임대광고입니다.



교회매매

·위치: 북구 연양로 7번길 51-31  
·면적: 대지 132평, 도로 15평  
1층-예배당 35평  
2층-사택 37.5평  
·금액: 9억3천만원 (중개가능 / 조장가능)

010-7653-8337

예배당 건물 매매

·위치: 광산구 사암로(대로변)  
※우산동, 소촌동, 신촌동이 교차하는 큰 사거리 인근  
·면적: 대지 121평, 연건평 110평  
1층-60평(사택, 식당, 교육관)  
2층-50평(예배당, 120~150석)  
·금액: 8억4천만원

010-2679-4934

교회 건물 매매

·위치: 광산구 신창로(신창지구)  
·면적: 대지 67평, 건평 80평  
1층-예배당 40평, 2층-사택 및 식당 40평  
부속건물 중 이중 유리실 방수실  
·금액: 7억원  
※리모델링(천장형 환풍기 및 난방)

010-9661-9099

교회 임대

·위치: 북구 중흥동 806-13(2층)  
안보화관 건너편  
·면적: 35평  
·금액: 보증금 1,000만원 / 월60만원

010-7129-0281

교회 임대

·위치: 북구 군왕로 159-1 / 2층  
·면적: 40평  
·금액: 보증금 1,000만원 / 월35만원  
※관리금 있음 ※깨끗하고 위치도 좋음

010-8884-2988

교회건물매매

·위치: 북구 설죽로 471번길 77 일교사거리  
북경주유주유소 옆(전철2호선 일교사거리역 옆)  
·면적: 대지-72평, 건평-110평  
1층-주방 30평, 교육관 및 사무실 25평 (화장실 별도)  
(1층 주차대: 교외로 도시가스 보일러 설치됨)  
2층-교회 본당 40평  
3층-유아실, 방수실 15평 (실용적 다용도 공간)  
·금액: 건물 및 교회비품포함 4억 5천만원

010-2518-8291

교회 매매

·위치: 북구 운암동 대지로 87 2층  
·면적: 123.2㎡  
※토비 10평 별도도 있음  
※1층같은 2층(공간 넓고 자유로움)  
·금액: 2억원 ※상당 가능  
※성물, 음향시설 기타 생활용품 인수가능

010-8609-7224

교회 임대

·위치: 북광동사무소 맞은편  
(목포엘림수영장)  
·면적: 40평 (3층)  
·금액: 보증금 3천만원 월44만원  
※조장가능

010-5302-3389

교회 매매

·위치: 북구 청신수련관 부근 3층  
·면적: 대지 56평  
1층-교회 2, 3층 주벽  
·금액: 6억3천만원  
※성구 일체 포함  
※수리 후 건물 깨끗

010-8210-5005

교회상가건물 매매

·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군왕로 182번길(상가 4층)  
·면적: 대지 82평, 건평 131평  
1층-인테리어 사무실(수납, 카페 가능)  
2층-교회 / 3층-조각 사무실 / 4층-사택  
·금액: 6억(조각가능) ※교회비품 무요로 드림(현금거래)  
※교회 이전으로 대대, 기도원, 개척교회, 목사사택, 타임존가능 ※주변에 아파트 단지 많음

010-4154-7945

교회 매매 및 임대

·위치: 송정동 아파트상가  
(난지하 등풍 환기 잘됨)  
·면적: 30평 예배당(주방겸 목양실)  
·금액: 8천5백만원 / 임대 5500 월35만원  
※성물, 집기포함 가격조정가능  
※리모델링, 교통주차편리

010-5600-8890

교회 임대

·위치: 남구 백운로 66번길 파리바게트 3층  
·면적: 55평  
·금액: 보증금 1,500만 / 월 60만  
※비건있음

010-7488-3375

교회 매매

·위치: 무안군 일로읍 월암리(사랑하는교회)  
(드림까지 차로 5분거리)  
·면적: 대지14평, 교회40평, 사택20평  
·금액: 1억4천만원  
※식당, 창고, 화장실  
※성물, 지동차, 타렉스1인승, 집기포함

010-8355-9200